

김대중 전 대통령 100년 '끝나지 않은 길'

전주 향교길 갤러리한옥서 8~15일 유준 작가 수묵화 전시

전주 향교길 갤러리한옥(관장 이택구)에서 '끝나지 않은 길' 제목으로 김대중 100년의 발자취를 그림으로 그리고 추모하는 유준작가 수묵화 전시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열린다.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8월 서거 15주기를 맞는 2024년 한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불굴의 의지와 남다른 통찰력으로 한반도에 상생과 평화를 심어준 김대중 대통령의 파란만장 일생을 40여 점의 수묵화와 글로 압축표현하고 '끝나지 않은 길' 수묵그림책으로 발간, 전주 한옥갤러리에서 펼쳐보이는 의미있는 전국 순회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서울 연세갤러리 전시와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5~6월 광주

오월미술관, 8월 안산갤러리전시에 이은 전국 순회 네번째 전시로 '사대문 예술문화원' 초대로 전주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역사의 질곡들을 헤쳐나온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수묵의 깊은 멋으로 표현된 작품과 수묵화로 읽는 화첩집기 '끝나지 않은 길' (아트공명 출판)도 향교길 '갤러리한옥'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8일 5시 갤러리한옥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오프닝은 소리꾼 이영기 공연, '행동하는 양심을 위하여' 시낭송 수묵화 추모동영상, '당신은 우리입니다' 재즈기수 운슬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100년 수묵화 전시 포스터

'엄마의 카세트테이프' 하반기 공연 예매 시작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이머시브 음악극... 하반기 6회 진행 예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7~2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엄마의 카세트테이프' 하반기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 예술교육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 작품은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1980년대 카세트테이프 공장 이던 전전자 여성 근로자였던 지역민들의 구술자료들과 최정 작가의 시나리오가 만나 공연화한 것이다.

작품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딸이 먼지 쌓인 낡은 상자 속에서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오래된 카세트테이프 하나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그 테이프 속에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꿈을 품고 있었던 스무 살 엄마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엄마의 카세트테이프'는 엄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엄혹한 시대를 온몸으로 건너온,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작은 존재들의 희망과 꿈, 우정과 연대, 좌절과 상처를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딸의 이야기이다.

특히 재단은 상반기 공연 종료 후 제작·연출진과 함께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공연에서는 다방면으로 수정·보완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느 한 곳을 주 무대로 활용하기보다, 관객의 관람 요소를 극대화하고, 공간에 대한 역사와 정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팔복예술공장 전역을 무대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선전지와 팔복예술공장의 시나리오적인 연결성을 보완하고, 모든 세대의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숙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수정하여 공연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123일 대장정 마무리

익산시, 중앙동 원도심 치킨로드 조성·지역상권·문화관광 활성화 촉진

익산 중앙동에서 열린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이 123일 간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나폴레옹의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와 치킨로드 조성을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익산 시민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익산역 맞은편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 마련했다. 전시 품목은 김홍국 하립그림 회전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나폴레옹의 유물 바이론(모자)과 은잔, 훈장, 양피지 등이다.



전시는 지난 4월 30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홍국 하립그림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개관식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시는 애초 두 달로 계획했으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에 힘입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 총 4달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장, 시민과 익산을 찾은 여행객 등 모두 1만 5,727명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나폴레옹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이들은 전시 관람에 이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음식점·카페를 찾으며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는 이번 나폴레옹 유물 전시가 지역 향토기업인 하립그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이 나폴레옹의 도전정신과 승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한양대·경희대 최우수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이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에서 한양대학교 ERICA 박민성·이선형 씨와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의현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기존 대학생으로 한정됐던 참가 대상을 대학원생(석사 부문)까지 확대했다. 학술대회 결과 대학본부에서는 한양대학교 ERICA 박민성·이선형 씨의 'MZ 세대 성인 태권도 참여자 유입을 위한 정책적 마케팅 제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대학원생부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의현 씨의 '도파민 마케팅을 활용한 태권도원 스포츠 관광 활성화'가 수상했다.

대학본부 최우수상은 성인 대상 운영 중인 태권도장의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20대에서 40대 사이 성인 태권도 활성화 및 수련생 확대를 위한 성인 태권도장 컨설팅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생부 최우수상은 변화하는 관광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도파민 마케팅'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지로서 태권도원의 정체성 확립과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전략을 제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학술대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와 공동주관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제3회 전주공예박람회' 참여 작가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9일까지 '제3회 전주공예박람회'에 참여할 공예 작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21~22일 전당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올해는 '공예로 지·구하'자를 주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손길을 보이며 지구와 공생하는 공예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기획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친환경 분야 8명과 일반 분야 35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작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부스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의 집기류와 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tc.or.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팀(063-281-1562)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28회 가을날의 트락음악회' 7일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7일 오후 7시 옥의뜨락에서 '제28회 가을날의 트락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에는 클래식기타 연주자 김우재와 바이올린 연주자 백사론이 함께하는 듀오와 다섯 연주자가 각기 다른 목관악기로 만난 록스 목관 앙상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무대를 채운다.

깊은 음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김우재·백

사론 듀오는 슈베르트, 파가니니, 피아졸라 등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대중에게 익숙한 고전 명작의 주제곡 등 6곡을 환상적인 선율로 선보인다.

록스 목관앙상블은 오보에 연주자 손연지를 비롯한 플루트 김정현, 바순 이준철, 호른 최하영, 클라리넷 김종철로 구성됐다. 목관악기로 모인 5명의 연주자가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을 만끽할 수 있는 연주곡 4곡을 준비했



다. 출곡과 영화음악 위주의 선곡으로 놀라움과 아름다운 화음을 그려내며 목관악기들의 열정적인 5중주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 음악회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이웃과 함께 만드는 음악회로서 의미를 더한다. 초가를 낭만적인 트락의 정취와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날의 트락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